

이 글은 비전문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. 참고만 바랍니다.

글을 읽으시는 투자자분들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 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, 본 매체에 게시되는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독자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심심한 Insight: 개인투자자의 예탁금과 삼전 시총으로 본 국장 리레이팅 가능성

[Chart and Fact Sheet]

[상대강도 플롯]



- 재밌는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. 지난 20년간의 코스피 상장사 수 총합, 코스닥 상장사 수 총합, 코스피 시총 계, 코스닥 시총 계, 증권 예탁금 총합, 삼성전자 시가총액입니다.
- 먼저 코스피 시총은 거의 대부분 코스닥 시총을 아웃퍼폼했습니다.
- 그리고 코스피 상장사 수 총합은 거의 늘지 않았는데 코스닥은 항상 늘어나고 있었습니다.
- 그럼 지수 투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장기투자로는 더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.
- 역으로, 개별종목 투자는 코스닥에서 찾아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습니다.
- 그리고 제일 주목하는 부분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증권 예탁금 총 계가 10조에서 60조로 6배 레벨업 된 거에 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6배씩 오르지 않았어요.
-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을겁니다.
- "아 한국시장이 역사적으로 짠 구간이 아니니까 지금은 일단 팔거나 보류하자"
- 실제로 외국인은 올해부터 1월까지의 매수세였고 2월부터 지금까지는 매도세입니다.
- 국내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역사상 최저 레벨인 30%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. 많았을 땐 40% 후반, 대부분 40%대를 유지했었습니다.
- 그런데 외국인들이 진짜로 한국 시장을 사야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(예를들면, 원화 강세가 시작되는 구간, 삼성전자나 반도체의 업사이클 구간, MSCI DM마켓 진입시 등) 생각보다 싸지 않은 코스피 지수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-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예탁금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6배나 늘어나 있기 때문입니다.

- 그런데 외국계 대형 자본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한국시장을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냐하면 펀드플로우가 선행하는 외국계 자본 스트림이 들어오면 그건 거의 다 다 패시브거든요.
-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제가 한국증시 리레이팅을 기대하는 이유입니다.
- 개인투자자 예약금은 최근 코스피, 코스닥 급락 구간과 약세구간에도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.
- 지금 증시는 다 개인투자자가 사서 버티고 있는거고
- 개인투자자가 국내 지분이 늘어난만큼 코리아마켓 밸류 재평가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.
- 저도 PER, PBR밴드차트 좋아하고 정말 많이 참고하지만 앞으로는 적정 밴드가 어딘지 얘기하는 지점이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.
-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연설명하면, 국내주식에서 삼성전자는 거의 모든 기간동안 아웃퍼폼했고 지수를 끌어올린 가장 큰 주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,
-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 이후 들어온 개인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전부 다 삼성전자에 간 게 아닙니다.
- 삼성전자엔 코로나 이전 대비 2배 정도 들어갔고 코스피엔 이전대비 1.5배, 코스닥엔 2배 정도 들어갔다. 나머지는 기회를 기다리는 대기자금이거나, 공모주만 노리는 자금일수도 있다, 그렇지만...!
- 그런데 확실히 이전보단 밴드 차트의 적정 수준을 다르게 봐야 한다.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더라...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